

시민과 함께 민주광장 채우는 ‘오월의 노래’

CULTURE

2025년 5월 1일 목요일

5·18민주항쟁 기념 상설음악회 5월 한 달간

전국 45여개 음악팀 공연…시민 참여 행사도

저항과 평화 정신을 담은 ‘오월의 노래’가 민주광장에 울려 퍼진다.

(사) 오월음악이 주최·주관하는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가 광주 동구 급남로 5·18민주광장 상설무대에서 5월 한 달 동안 펼쳐진다.

‘오월의 노래’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전제와 폭압에 대한 저항을 노래하며 자발적으로 열렸던 ‘거리음악제’의 명맥을 잇는 행사로, 2015년 5월 다시 시작돼 매년 5월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5·18 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1일 사전행사와 10일 공식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31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80분 동안 진행된다.

올해 행사는 전국에서 초청된 45여팀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우물안개구리, 거봉악단, 바다 프로젝트 등 광주 지역 인디 뮤지션 다섯 팀으로 꾸려진 ‘오

월의 노래’ 기획단이 기획과 연출을 맡아 추진한다.

먼저 5월 첫 번째 주말인 3일과 4일에는 시민 참여 무대 ‘오픈 마이크’가 사전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어린이날인 5일에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월편지쓰기 및 그리기 행사가 함께 마련된다. 5일부터 9일까지는 우물안개구리, 조재희&김민석, 리승준과 봉봉초이, 바다프로젝트, 거봉블루스밴드 등 광주 인디뮤지션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10일 열리는 개막식은 바투카다 공연단인 까미뉴 다 바다의 거리 행진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플래시몹, 최근 탄핵 집회를 이끌었던 가수 백자, 지난해 ‘오월의 노래’ 연출진이 본격적인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11일부터는 최고은, 하이 미스터 메모리, 집시사랑단, 언제나봄, 류의남, 프롤로그, 감국주 밴드, 기드온 밴드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총출동한다.

광주 노동자 노래패 연합, 푸른솔 시민 합창단 등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상설무대에서 5월 한 달 동안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시민 음악팀과 크랩블 등 청소년 밴드도 무대에 오른다.

또 광주 민중음악을 이끌어온 박종화, 김원중, 주하주 등 아티스트들이 세대와 지역을 넘어 각각의 특색이 담긴 오월을 노래한다.

30일 문화공동체 판청과 예술창작터 수다가 협

업한 소리극 ‘소년이 온다’를 선보이고 31일 아티스트들의 릴레이 공연 등으로 막을 내린다.

(사) 오월음악 관계자는 “‘오월의 노래’는 매년 5월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음악으로 민주 정신을 되새기고 시민들과 다함께 즐기는 축제다. 5·18 기념 행사의 첫번째 문을 여는 이번 음

악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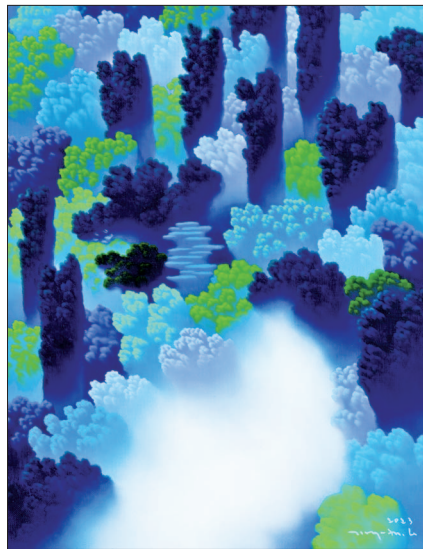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17일과 18일, 24일 등 시흥은 ‘5·18 전야제’ 등 기념행사 관계로 열리지 않는다. 자세한 일정과 공연 정보는 공식 유튜브 및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82-0518.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현실과 이상 사이 간극…몽환적 화폭 일궈

‘19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 김용안 초대전 13일까지

‘제19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김용안 작가의 초대전이 지난 25일 개막, 오는 13일까지 신세계갤러리에서 ‘간극의 공간II’라는 주제로 열린다.

안개로 둘러싸인 푸른 숲의 이미지를 통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탐구해온 김 작가는 나무와 안개를 주의깊게 관찰했다. 나무들은 청록색을 넘어 청색으로 물들고 그 위를 덮은 안개는 경계를 흐



‘길들여진 정원’

리게 하는 기법을 선호한다. 사실적으로 묘사된 듯 보였던 숲은 어느새 이상향을 그린 관념 산수화처럼, 우리가 밟고 있는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풍경으로 다가온다. 작가의 초현실적 풍경은 캔버스 위에 유화물감으로 그려졌지만, 유화의 질감을 강조하기보다는 종이에 스며드는 수묵화처럼 표현, 완성된다. 이로써 작품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안개가 더욱 몽환적으로 피어오르고, 푸른 숲은 채색되지 않은 백색 화면 너머로 이어진다.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던 안개는, 삶을 압박하는 권력이나

사회적 불안의 상징으로 변모해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특히 작가의 작품은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는 김용안 작가의 숲이 단순한 일상을 벗어난 이상 세계가 아니라, 일상의 위협이 도사리는 세계에 대한 은유를 투영, 주목된다.

작가는 “작품에 나타나는 안개의 양가성은 아름답고 신비롭지만 무섭고 두려운 권력의

상징이자, 현실의 삶을 한 화면 안에서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하는 장치”라며 안개가 상징하는 상반된 의미에 대해 말한다.

‘간극의 공간II’는 2020년 열렸던 김 작가의 박사학위 청구전 ‘간극의 공간’의 주제 의식을 심화·확장한다. 지난 미술제 심사평에서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보이지 않는 힘을 미려한 풍경의 역설적 공간으로 승화한 그의 작업은 초월적 혹은 초현실적 이미지로 다가온다”고 평하며 우수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기술·예술 결합한 ‘스포츠 축제’

쏜문화전당 ‘미래운동회’ 내달 1일까지 복합전시
YCAM 공동 개발…체험형·아카이브 전시 등

모두에게 친숙한 ‘운동회’ 문화를 과학기술과 예술로 흥미롭게 경험하는 체험형 전시가 선보여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디지털 스포츠 축제인 ‘ACC 미래운동회’를 지난 30일 개막, 6월 1일까지 복합전시1관에서 진행한다.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마련된 ‘미래운동회’는 운동회 문화를 디지털 기술과 현대예술로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전시로, 미래형 놀이와 스포츠 문화를 새롭게 제시한다.

행사는 관람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새로운 스포츠 종목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전시 기간 중에는 종목 개발을 위한 ‘해커톤(공동 창작대회)’이 열리며, 여기서 개발된 종목들은 이어 열리는 운동회 행사와 전시에 반영

된다.

운동회는 체험형 전시와 상시 관람이 가능한 전시로 나뉜다. 먼저 최신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전시는 ‘디지털 팡파벅기’, ‘굴러라 모여라’, ‘AI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불나방 대소동’, ‘다함께 춤을 추다가’, ‘스포츠 타임머신’, ‘그림자 축구’, ‘따르릉 전화받으세요’ 등이 복합전시1관 내 5개 공간에서 번갈아가며 열린다. 또 운동회의 역사, 예술과 스포츠의 관계, 콘텐츠 개발 과정을 담은 아카이브 전시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전시 콘텐츠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

년’을 기념해 일본의 디지털아트 기관인 야마구치 정보예술센터(YCAM)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로 추진됐다. 또 광주 동구청이 개발한 지역 맞춤형 건강체조인 ‘동구랑 건강체조’를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전시 준비운동으로 선보인다.

참여형 행사는 총 4회 진행된다. 가장 먼저 어린이날을 맞아 2일 광주시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초등학교생들이 참여하는 첫 번째 운동회가 열리고, 이어 16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운동회가 진행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커톤과 운동회는 오는 9~10일(1차), 23~24일(2차) 각각 열린다.

행사 참가자는 ACC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모집하며 각 행사별 참여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된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즐겁게 춤을 추다가



불나방 대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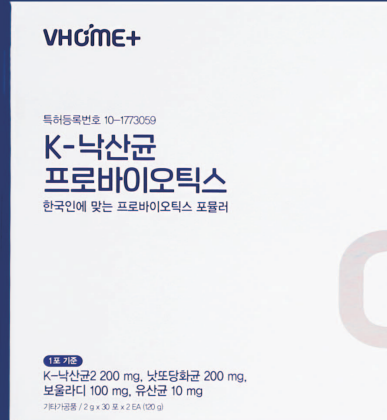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약국출시

한국인은 K-낙산균

국내 최초 특허
한국인 유래 특허 균주 함유



문의전화 1588-8529

제조원 엔페케이(주) | 유통판매원 비타민하우스(주)